

작품 내용

제 목	복사되지 않는 것
내 용	같은 하늘을 올려다봐도 사람마다 바라보는 구름은 다르다. 누군가는 고래를 보고, 누군가는 그저 구름이라고 한다. 생각은 그렇게 각자의 눈에서 태어난다. 한 줄의 문장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실패와 오래된 기억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지나 비로소 하나의 이름을 얻는다. 그래서 저작권은 종이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키는 일, 복사할 수 있는 것은 글자뿐 그 문장을 여기까지 데려온 한 사람의 시간은 복사되지 않는다.